

지자체들, 원전 오염수 방류 집단대응기로

11일 경남도청서 열려... 5개 연안시도 참석 해양 방류 공동 대응 방안·협력 과제 발굴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경남·부산·울산·전남·제주 등 5개 연안시도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5개 시도 담당과장이 참석해 각 시도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과 협력과제 발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경남도는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해양방류가 내년 4월로 다가옴에 따른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간 5개 시도만 참석했던 회의에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참석을 추가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와 수산물방사능안전대응반 과장이 참석해 정부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한편, 경남도를 비롯한 연안시도는 일본정부의 해양방류 발표가 있기 전인 2020년 10월에 해양방류 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그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작성해 17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해수 방사능 측정망 확대 및 검사결과 공개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건수 확대 등 검역



강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 및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제 강화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마련 등의 건의사항을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전달하는 등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문화해 왔다.

이와 함께 경남도에서는 도내 해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 수산물안전관리센터를 개소해 방사능 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감마핵종분석기 4대와 검사 전담인력 3명을 확보해 연 100종의 품종에 대해 3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누리집에 주 1회 게시하는 등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전남 어업인 “업종별 특성 고려 TAC 제도 개선 필요”

서남권역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토론회 열려

지난 15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서남권역 토론회’에서 전남 어업인들은 어업현장에서 중복적용 되는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남권역 토론회에서는 △흔획이 수반되는 업종(정치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의 자원관리 방안 △TAC 적용 업종(참조기, 말쥐치, 소라 등)에 대한 금어기 또는 금지제장 완화 적용 △주변국과 연계한 회유성어종 자원평가 실시 △어선원·어선보험 국고보조율 인상 등의 현장 의견

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선현 전남 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정치망어업의 특성상 비선택적어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금어기·금지제장 규제의 일괄적 적용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따라서 조속한 어업자협약을 통해 정치망어업에 대한 금어기·금지제장 적용 제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했다.

회유성 어종에 대한 주변국과 연계한 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



왔다.

현재 오징어, 고등어 등 주변국과 경쟁적으로 조업하는 회유성어종의

경우, 우리나라 자체로 진행되는 자원평가에 근거해 TAC를 설정한다.

하지만 어업인들은 타국의 자원관리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TAC 제도에는 한계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일본·중국 등 인접국과 연계한 자원평가 및 관리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수온상승으로 인해 말쥐치, 소라 등의 산란기가 조정돼,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금어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지적했다.

수협은 오는 22일 강원·경북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현장발굴단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촌 활성화 방향·정책 논의

충남도

충남도도와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10~11일 보령 무장포 비체펠리스에서 ‘충남지역 어촌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어촌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어촌지역 사업 관계자 간 교류를 촉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어촌계, 지역단체, 학계 및 도·시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 특강, 도 정책사업 소개, 포럼 등을 실시했다.

첫날 전문가 특강에선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장이 ‘충남 어촌 신활력 제고와 어촌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어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성과 및 과제, 어촌신활력 정책 방향 등을 짚고 어촌활동을 양성,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귀어·귀촌 생애주기 밀착 지원 △귀어·귀촌 관계기관별 역할 및 협력 강화 △귀어·귀거 공간 조성 △청년 귀어인 맞춤형 지원 △귀촌 희망자 정착 지원 기반 마련 △청년(여성)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 등이다.

강원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연어산업 규제혁신 사례로 1억 7천만원 인센티브 획득

강원도환경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규제혁신으로 우리가 생산한 K-연어가 밤상에 올라간다’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94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9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강원도는 연어산업 규제혁신 사례로 최우수상과 1억 7,000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획득하게 됐다.

환경동해본부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대서양연어 국산화와 산업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해 산재한 각종 규제를 해결해 왔다.

먼저, 환경부의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대서양연어를 국내 양식이 가능하도록 해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을 성공시켰다. 또 해양수산부의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



기업이 대서양연어 양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양식산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식승인 대상종에 포함시키고, 대서양 연어 수정란 수입을 위한 국가간 검역 체계에 기여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법’을 개정해 이전까지는 1차산업이 산업단지에서 개발되지 못했지만 스마트 양식분야는 가능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강원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3개 부처의 핵심 규제를 해소하고 연어 국산화·산업화를 위한 생태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스마트양식 클

러스터 조성 400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를 2024년까지 건립할 예정이며 연관 산업으로 ㈜동원산업이 2,000억원을 투자해 양양군에 대규모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연어산업이 ‘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힘입어 조속히 연어 스마트양식을 산업화해 강원도가 아시아 연어양식산업의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전남도, 김 양식 어업인 안정적 김 생산 지원

고흥지역 3개소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 운영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11일까지 2023년산 김 채묘를 완료한 고흥지역 김 양식 어업인의 안정적인 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현장 상담실은 구암위판장, 발포위판장, 시산항 등 3개소에서 운영됐다. 현미경 검증 등을 통해 인근 어장에 시설된 김 염체 건강도, 중성포자 부착여부와 황백화 발생유무 등 현재 김 양식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했다.

또 현장에서 진단 결과를 개별 안내하고 어장별 생육관리를 위한 노출시



간 조절, 세척 등 김발 관리요령, 월별 관리방법과 질병 대응법 등 양식 기술 교육도 병행했다.

고성군 대진어업인들 삼선녀어장 입어 포기

최근 북한 도발 영향 9~11일 예정된 어장 입어 안해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 중 하나인 삼선녀어장에서 조업을 포기하는 어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진어촌계(계장 진맹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의 도발 영향으로 대진어촌계 어민들이 지난 9~11일 예정된 삼선녀어장 입어를 포기했다.

어업인들은 자망 11척과 해녀 53명 등이 조업활동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안전 우려로 조업을 포기했다. 지난해엔 삼선녀어장에서 해삼과 홍합, 전복, 우렁쉥이, 해조류 등을 채취해 1억 1,000만여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하지만 현재는 불안한 안보상황과 고유가까지 겹치면서 계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진어촌계 진맹규 계장은 “고유가, 안보 등으로 계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과 최호선 과장은 “입어를 포기한 현장을 찾아 어민들을 만나 고충사항을 접수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지방 패트룰

전남귀어학교, 전국 첫 총동문회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현장 중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귀어에 기여한 전남귀어학교가 ‘제1회 총동문회’를 열어 선배들이 후배들의 성공적 어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귀어학교 개교 2주년을 맞아 개최된 총동문회는 14일부터 열흘

간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통해 수료생 간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귀어학교는 현재까지 7기 1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들은 △선후배 간 귀어 경험담 공유와 성공전략 토론 △귀어학교 수료자 어촌 정착기 소개 △귀어 성공사례 발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인천시, 여성어업인 상생 경진대회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산하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한국어촌어항공단 위탁운영, 이하 인천센터)는 지난 15일 오후 송의여자대학교(이하 송의여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인천 여성어업인 상생 프로젝트 ‘원하는 바다’ 경진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올해 8월

부터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과 멘토(어촌마을)·멘티(대학생) 활동에 참여한 7개소 어촌마을의 ‘바다가꿈’ 아이디어가 평가됐다.

심사단은 마을별 아이디어의 △적합성 △독창성 △전문성 △마을 적용 가능성 등 4개 요소를 고려해 우수한 마을을 선정 및 시상했다.

삼척여성어업인연합회, 장학금 기탁



강원도 삼척시여성어업인연합회 이준남 회장을 비롯한 회원 6명이 지난 11일 삼척시(시장 박성수)를 방문해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향토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서천서부수협분회, 사랑의 김장 행사

서천군 서면이 한국어성어업인연합회 서천서부수협분회(회장 이순애)가 지난 15일 서면 마량 위판장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장 나눔 행사는 2011년부터 매

년 겨울마다 추진됐으며, 회원 20여명과 서천서부수협, 서면행정복지센터, 서면사랑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담은 김장김치 200포기와 함께 기부한 쌀 48포는 (새서면사랑후원회(회장 박종민)를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됐다.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지사장 채흥기)는 지난 16일 강릉시 왕곡면 한옥마을에서 지역주민, 수리시설 관리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물관리 현장 설명회에 참석해 설명을 들은 뒤 만족한 시간을 보내고 공사에 감사함을 전했다.

강릉지사 채흥기 지사장은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갑작스런 이태원 헬러원 참사로 인해 슬퍼하고 힘겨워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물관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도 물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병춘 강원본부장〉



“귀어학교 졸업으로 성공적 어촌정착 희망”

충남도, 제7기 귀어학교 졸업식 개최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11일 연주소 내 충남 귀어학교에서 제7기 귀어학교 졸업식을 개최했다.

졸업식은 4주간 교육을 수료한 제7기 충청남도 귀어학교 교육생 22명 및 학교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식 선언, 표창장 및 졸업장 수여, 격려사, 기념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했다.

표창 수여식에서는 적극적으로 교

육과정에 참가하고 교육생들 간 화합에 기여 및 성적이 우수한 홍영순 씨가 도지사 표창을, 김영준 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7기 과정은 귀어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어촌에 대한 이해가 향상될 수 있도록 2주간의 이론교육과 함께 어촌살이캠프에서 2주간의 체류형 실습으로 진행했다.